



## ‘흔들리며 피는 꽃’

지난 6월 25일에는 남부교도소 공장 미사를 다녀왔습니다. 미사 봉헌은 강당에서 진행되었는데, 널찍하고 채광이 좋아 그런지 제법 쾌적하고 여유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당 뒤편에 적혀 있는 큼직한 글귀가 참 좋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미사 봉헌하는 내내 마음에 올림이 있어 집에 와서 찾아보니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의 앞 소절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모진 바람 속에도 타는 듯한 태양 아래에서도 심지어 거센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피우며 결국 한송이 꽃을 피워 냅니다. 꽃이 더욱 대단한 것은 역경을 버티어 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자신의 양분으로 만들 줄 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꽃은 참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우리 사는 것도 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삶을 피워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들이 모르는 시련과 고통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한가득합니다.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이고 역설적 이계도 오히려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해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꽃이 땅에 뿌리를 내려 버티어 서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양분으로 돌려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내듯, 우리도 하느님께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버티어 서서 삶의 역경을 영적 성장으로 돌려 낸다면 아름다운 삶을 피워 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없어지고 말 허상이 아닌 영원한 하느님께 뿌리를 내리고 버티어 낸다면 우리도 아름다운 삶을 피워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피워 낼 아름다운 꽃송이를 응원합니다.

##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야유회



6월 16일(일)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를 비롯한 기쁨과희망은행 실무자, 운영위원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 안산 둘레길을 걸으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야유회에 함께 해 주신 기쁨과희망은행 실무자와 운영위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쁨과희망은행 제21기 창업교육



6월 24일(월)~28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제21기 창업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7명의 교육생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안정된 사회 정착과 인격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대일 신부는 “우리 기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모든 분에게 대출이 어렵지만, 여러분을 위해 강의해주시고 대출할 수 있게 천원, 오천 원, 만원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회원, 최소 이천 명 이상의 분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며 교육생들을 독려했습니다. 7월 13일(토) 대출심사를 통해 선정된 교육생들은 멘토와 함께 창업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7월 1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강인석 프란치스코하비에르(소년원 담당) 신부의 주례와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 이상원 사도요한 부위원장, 김도훈 라파엘 부위원장 신부의 공동집전으로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강인석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 그동안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험난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게 된다. 아이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지만, 힘들었던 그 시기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줬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라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수용자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느님은 분명 그들 안에 씨앗을 심으실 거고, 우리를 통해서 그 씨앗은 분명 퍼져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 달, 수용자들이 마음의 짐을 덜고 하느님의 사랑에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 왕십리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7월 6일(토)~7일(일) 왕십리 성당에서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강론을 통하여 이상원 신부와 김도훈 신부는 “요즘 흥흥한 뉴스들을 볼 때면, 가장 작은 공동체였던 가족 안에서, 학교 안에서, 사회 안에서 밀리고 밀려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까. 우리의 무관심이 책임도 있지 않을까.”라며, “내 팔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그 팔을 잘라내지 않고 닦아서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에게 모든 자녀는 팔과 마찬가지로이다.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교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범죄 피해자와 출소자들에 대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신자분께서 교정사목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후원회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왕십리성당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더불어 사는 삶

남미숙 율리어나\_ 남부교도소 훈련원 봉사자

### + 평화와 선

어느 날 형제들의 방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있어 면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사서 먹는 것에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다툼이었답니다.

교도관은 '우리도 밥만 먹고 살지 않는다, 여기서도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마음에 확 와 닿으며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은 무거워졌고, 생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며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봉헌을 하면서 따뜻한 마음이 들어 행복했습니다.

어느 때처럼 교도소 앞을 지나는데,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보였고 가족들이 이름을 부르며 서로 부둥켜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미사 때 복사를 서던 형제가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가족이 멀리 있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가벼운 옷차림의 형제를 신부님과 함께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준비한 작은 선물과 잘 가라는 인사를 나누었으나, 혼자서 먼 길을 찾아가야 하는 형제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진 못한 것이 봉사하면서 두고두고 마음 쓰이는 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만남이 따뜻한 기억으로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형제들과 봉사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라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최정현 힐라리오\_ 신학과 4학년

이번 교정사목 실습을 하면서 소중한 경험들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보고 만났던 수용자들과 출소자들, 맨 처음에는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잘 헤아려볼 수 있을지,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도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제 안의 선입견과 무리한 욕심들은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처음 방문했던 구치소 환경은 시각, 후각적으로 경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내는 이들의 모습에서 반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최고수인 사형수들을 만났을 때는 저도 모르게 긴장하고 제 신체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남을 세세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오고 가는 가시방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 실습 기간을 지내면서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데 ‘작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인사에서부터 안부, 기도, 격려 등 ‘표현’의 중요함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수용자들을 향한 신부님들의 악수와 포옹, 미사 전례 안에서의 집중하시는 모습, 복음 말씀과 강론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들을 향한 봉사자분들의 따뜻한 미소와 힘찬 격려, 미사 준비 및 생활 성가 반주, 간식 준비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힘들고 암울하고, 어려워하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려는 것,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것 등, 오늘날 교회가 제시하고 바라보는 ‘친교의 공동체’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이, 눈먼 이, 세리, 창녀 등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위로해주셨으며,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최고수 형제와 함께 하는 자리가 쉽지 않았지만, 같이 복음 나눔을 통해 느낀 점을 공유하고, 일상생활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출소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하느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평소 지내는 모습들을 보며, 저녁 식사 때 함께 일상을 나누고 웃음을 공유함으로써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제 생각들을 조금씩 교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존엄합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곳 교정사목에서는 용서와 화해, 돌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용자와 피해자 가족 사이 안에 놓인 관계, 이들의 입장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적 관점에서 돌보려는 신부님들의 노력, 직원, 봉사자분들의 친절하고 헌신적인 협력 등 그 안에서 행동하고 고찰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쉬운 작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선하시며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저는 지평을 새로이 확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외된 약자들의 편에서 늘 함께하려는 마음 잊지 않으며, 교정사목 안에서 관련된 모든 분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로 위로받고 일치하여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끝으로 6박 7일간 교정사목 실습을 하면서 함께 애써주시고 격려해주신 신부님들, 직원분들과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교구 대신학교 신학과 4학년 여름방학프로그램으로 사회사목 실습으로 교정사목을 신청했습니다. 하느님의 용서와 인간 사이의 화해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회개와 하느님과 피해자의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 깊고 크게 찢어져 버린 상처가 어떻게 아물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6박 7일 동안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신부님들과 함께 교정시설을 다니면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분류심사원과 고봉 중·고등학교에서 살레시오 수도회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은 최고수 미사에도 참석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명찰과 투박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신앙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죄를 생각할 때마다 소스라치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제 신경을 곤두서게 합니다. 사람이 가진 복잡한 양면성을 생각할 때마다 해결할 수 없는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눈물과 상처가 제 마음을 점점 무겁게 채워놓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루카 15,7)라는 성서 구절을 듣게 될 때마다 저는 오히려 죄인 한 사람이 급작스레 가져오는 크나큰 상처와 파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죄의 잔혹함과 파멸성을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2천 년의 역사 동안 죄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언제나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강조해왔습니다. 탕자의 비유(루카 15,11-32)에서 하느님은 남을 심판하고 단죄하지 않고, 완고해진 첫째 아들을 달래는 아버지이시며, 뉘우치며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누구보다 귀하게 받아들이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죄라는 긴장 관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목이 바로 교정사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용자와 피해자 모두를 사목하는 교정사목을 통해 하느님의 뜻과 방식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하느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뵈게 됩니다. 전지전능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분 사랑의 방식을 깨닫고 설득되기란 너무나 어려운 듯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고통과 슬픔 안에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무엇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죄악의 신비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으며 수용자와 피해자와 함께 하느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을 잊지 않으면서, 처참하고 잔혹한 죄악을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하면서, 달아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4학년 신학생들이 일주일간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체험한 느낌을 적은 글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직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두려움이 희망으로

### 제21기 창업교육생 소감문

21기 교육생 정OO

기쁨과희망은행에서 출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창업대출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쉽게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고, 내가 수용되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나이로 취업은 너무 어려웠고, 당장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또 내서 제가 있었던 구치소를 찾아가 계장님을 만나 추천서를 부탁드렸고, 부랴부랴 신청 마지막 날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처음 방문했을 때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셔서 조금씩 속 얘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도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서류 심사 후 교육을 받게 되면 5일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놓칠까 두렵기도 했고, 교육을 받는다 해도 100% 지원되는 게 아닌데 내 처지에 무슨 5일씩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마친 지금 교육을 받기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날 교육을 받고, 집에 가는 길에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운영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쇼핑몰 창업과 마케팅 강의가 저한테는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교육을 안 받았으면 어쩔뻔했나 싶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감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여기있다는 이유로 곧따를 엄마에게 귀찮이람 하나

달아들이지 못해 귀찮혔는데.. 이기리에 항줄 저어요 ~

매주 엄마 얼굴 볼때마다 딸때문에 점점 수척해지는데 보여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무지했던 딸때문에 우리엄마가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혼자 옥상해서 환 계절것 생각하엿.. 해줄게 아무것도 없는 이딸은

이렇게 한들 이상황이 너무 귀찮아요..

앞으로 엄마타의 시간이 터 많기를..

엄마가 내옆에 오래오래 계시기를 매일매일 간절히 바래봐요.

그러나.. 매일 매일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바래봐요.

사랑해요. 엄마.

19.5.14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는 자매가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어머니에게 드리는 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2019년 9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9월에는 후원회원을 위한 피정도 함께 진행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30 ~ 14:0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9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6/10~7/12)

6월~7월에는 왕십리 본당 71명의 교우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왕십리 본당 8명의 교우와 박한조 사도요한, 윤은미 실비아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하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행사알림

- 8월 5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회의 / 교정사목센터
- 8월 6일(화)~9일(금) 고봉중고등학교 여름신앙학교 / 고봉중고등학교
- 8월 8일(목)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8월 12일(월)~20일(화)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인성교육 / 서울남부구치소
- 8월 21일(수)~23일(금)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사제·수도자 하계 연수 / 강원도 양양
- 8월 29일(목)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주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 명동대성당
- 8월 30일(금)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18차 이사회 / 경기도 양주



### 후원 계좌번호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